

TV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이보영 “날 선 배역 힘들지만 시청률 높아 좋아요”

KBS 주말극 ‘내 딸 서영이’ 안방극장 평정

KBS 2TV 주말 드라마 ‘내 딸 서영이’가 최근 시청률 30%를 돌파하면서 안방극장을 평정하는 등 전작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인기를 넘보고 있다.

특히 주인공 이보영(33·사친 왼쪽)은 남몰래 숨겨진 불안감을 털어냈다. 이보영은 최근 “지난주부터 기사가 나오는데,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영이가 있으니까 재미있더라”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좋은 반응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솔직히 제작발표회 때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살짝 서운했다”며 “사실 나도 불안하더라”고 초반 극에 대한 걱정도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집안도 없이 여자 아이고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 부모라면 지긋지긋해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행복하게 자란 사람들은 ‘그래도 아버지인데’라고 말씀하시고,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찬반양론이 있더라고요. 대반만 보면 저도 아버지를 보기 싫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극 중 서영이에게 심본 공감하면서, 대사를 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토론했다. 비록 대본 속 인물들이긴 하지만, 하늘이 맺어준 천문인 탓이다.

“아버지가 싫어도, 그걸 부정하는 것은 제근본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서영이도 그러리라 생각해요.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녀의 연을 끊는 동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지난 방송 내내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낸 이보영은 “지난 10회를 촬영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박해진과 울고불고하니 몸살이 났다”며 마치 벌써 작품을 하나 끝낸 것 같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촬영 일정도 일정이지만, 여느 주말극답지 않게 격정적인 감정을 분출하다 보니 정신적인 피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적도의 남자” 때에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캐릭터라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지금은 날이 서 있어요. 대본을 받고, 대사 외우고 별것 아닌 일을 하는 데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예민해진 상태예요. 많이 경직돼 있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웃음)”

그는 새벽 4시에 추가 대본을 받고 ‘영영’ 울기도 하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는 연기를 마친 뒤 긴장이 갑자기 풀리면서 잠이 꼬여 고생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11월부터 서영은 관사로 입관해 우진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셔츠 몇 벌을 돌려 입던 시절과는 영 판판이다.

“극 초반에 청바지에 와이셔츠를 입었던 KBS 입구에서 계속 지지당했어요. 연기자 맞다고요. 경비 아저씨가 대기실에 쫓아오셔서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시던데요.(웃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3일(을 9월 9일 丁巳)

Table of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Each entry includes a brief prediction and a lucky number.

Table of EBS programs, divided into EBS and EBS 플러스1/2 sections, listing show titles and broadcast time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Kotomong English' and '한자이야기'. Includes English phrases lik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gift' and Korean explanations of the characters 刮目相對 (刮목상대).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니하오 중국어' and '오하오우 니혼고'. Includes Chinese phrases like '留后路 liúhòulù' and Japanese phrases like 'あり得ない'.